

# 진정한 봄은 오는가... 아트로 과학과 민주주의 탐색

‘민주주의의 성지’ 광주에 위치한 ACC가 개관 10주년을 맞아 아시아 민주·평화 정신을 바탕으로 기획한 특별 전시가 마련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김상욱)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진행하는 특별전시인 그것으로, 4일 개막, 내년 2월까지 복합전시1관 및 미디어큐브 일원에서 ‘봄의 선언’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개막에 앞서 3일 오전 특별 전시와 함께 기술 및 예술의 융합축제 ACT 페스티벌 프레스 투어가 실시됐다. 이 투어에는 M+ 실케 슈미를 사벨 시니어 큐레이터, ZKM 엘리스터 허드슨 관장, 클라라 롱게 큐레이터, 앤 덕희 조던, 박경근, 이끼바우쿠르르, 페르난도 팔마 로드리게스 작가 등이 참가해 각자 작품들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특별전에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젊은 작가부터 베니스 비엔날레 국가관을 대표한 작가까지 국내외 16명의 작가가 총 27점의 작품을 출품했다.



‘봄의 선언’전을 설명 중인 원리원 화예연구소(오른쪽).

## 국립문화전당, 10주년 기념 국제 협력전 ‘봄의 선언’

내년 2월까지 복합전시1관 등서...홍콩 M+·독일 ZKM 협업

### ‘ACT 페스티벌’ 오늘부터 9개국 11팀 총 13개 작품 선봬

오디오 비주얼콘서트 ‘SSNN’·‘이토 메이큐’ 국내의 첫선

‘봄의 선언’은 아시아 민주·평화 정신을 바탕으로 기획한 특별 전시이며, 지난 1월부터 세계적인 문화예술기관인 홍콩 M+, 독일 ZKM 카를스루에 예술미디어센터와 협력해 준비한 초대형 프로젝트다.

전시는 ‘우리는 어디까지 왔는가’와 ‘봄의 징표들’ 등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섹션 ‘우리는 어디까지 왔는가’에서는 기후 위기와 불평등, 식민주의와 자본주의의 결탁이 남긴 흔적을 통해 사회의 면면들을 성찰하고, 두 번째 섹션 ‘봄의 징표들’에서는 이끼바우쿠르르 작가의 ‘마당’을 중심으로 인간을 넘어 공존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특히 세계무대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ACC, M+, ZKM의 공동 지원 아래 이번 전시를 위해 16점의 신작을 특별 제작, 주목된다. 이와 함께 M+와 ZKM 각 기관이 보유한 주요 소장품도 함께 선보인다.

‘봄의 선언’전은 광주의 맥락도 중요하게 다룬다. 1995Hz는 무등산의 역사와 생태를 바탕으로 남도의 전통음악과 미디어아트를 결합한 새로운 퍼포

먼스를 제작했으며, 박경근 작가는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금남로를 배경으로 광주의 과거와 오늘, 미래를 연결한다. 이어 김순기 작가는 무등산과 독일 카를스루에에서 시를 읊는 퍼포먼스를 펼쳐 광주와 세계를 잇는 연대를 구축한다.

ZKM 예술미디어센터 카를스루에와 그린피스 환경신탁 후원으로 제작된 테리토리얼 에이전시 ‘석유 박물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커미션으로 ZKM 예술미디어센터 카를스루의 협력으로 제작된 앤 덕희 조던의 ‘깊은 곳으로’ 등 눈길을 끄는 작품들이 많아 작은비엔날레를 보는 듯하다.

또 아시아 대표 아트-테크놀로지 축제 ‘ACT 페스티벌’(Arts&Creative Technology)이 5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다. ‘뉴로버스: 깨어있는 우주를 향해’를 주제로 열린 이번 페스티벌은 9개국 11팀의 총 13개 작품을 선보인다. 주제로 차용한 ‘뉴로버스’는 신경망과 우주를 결합한 개념이다.

이번 페스티벌은 인공지능(AI),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확장현실(XR), 몰입형 사운드 등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예술과 과학, 인간과 사회에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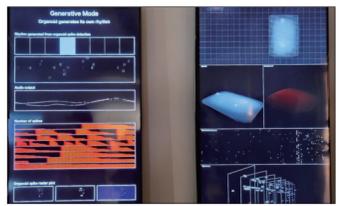


개막에 앞서 3일 오전 특별 전시와 함께 기술 및 예술의 융합축제 ACT 페스티벌 프레스 투어가 실시됐다. 사진은 M+ 실케 슈미를 사벨 시니어 큐레이터(오른쪽 세번째)와 ZKM 엘리스터 허드슨 관장(왼쪽 네번째) 및 기획자와 출품작가 등이 작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예술이 그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 수 있는지를 탐색한다. 복합전시 5관과 입체음향제작실에서 열리는 전시에서는 베네치아 국제 영화제 이머시브(몰입형 작품) 그랑프리 수상한 감독 보리스 라베의 ‘이토 메이큐’를 한국 최초로 만나볼 수 있다.

이외 대만의 아티스트 그룹 2ENTER는 광주의 역사와 지리, 일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CC 신작 ‘데이터-버스, 광주’를 공개하며, 대만 출신 미디어 아티스트 탕-통 창과 영국 기반 그룹 블라스트 시어리는 협업작 ‘증명이 필요한 듯이’를 선보인다. ‘증명이 필요한 듯이’는 바닥에 그려진 가정집 도면 위를 걸어다니며, 방마다 펼쳐지는 영상을 탐험한다.

이미 언급한 바 있는 세계적 사운드 미디어 아티스트 다이토 마나베가 10년 만에 문화전당을 다시 방문, 페스티벌 첫날인 5일 예술극장 극장1에서 오



‘ACT 페스티벌’ 전시에서 선보이는 다이토 마나베 작 ‘브레인 프로세싱 유닛’

디오 비주얼콘서트 ‘SSNN’(Sound Synthesis Neural Network)을 세계 최초로 펼칠 예정이다. 같은 날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으로 주목받은 오민은 페스티벌에서 생애 최초의 대규모 극장 무대 ‘동시, 렉처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작품 ‘센’과 함께 작가와의 대담 프로그램도 6일 진행된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 ‘양림동 펭귄마을’ 현대미술 무대로 탈바꿈

근대역사문화마을인 광주 양림동에서 창의문화지대 구축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된다.

호랑이사나무창작소(대표 정원기)는 골목과 공방, 그리고 일상의 공간을 현대미술의 무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실험적 기획으로 마련된 ‘Awakening Spaces: 일상을 깨우는 공간’전을 5일부터 오는 11월 13일까지 펭귄마을 공예거리 일대에서 갖는다고 4일 밝혔다.

‘삶과 예술이 연결되는 순간’이라는 주제로 펭귄미술관을 비롯해 펭귄마을 공예거리 11동, 15동 A, 15동 B, 양림동 청년창작소 별관 등 총 5개 공간에서 열린 이번 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후원, 펭귄마을 공예거리와 양림미술관거리 협의회 협력으로 골목을 전시장으로 탈바꿈한다는 목표로 이뤄진다.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기간과 맞물려 국내외 관람객의 발길을 양림동으로 이끌어내 지역 예술 생태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



4일 오전 열린 오픈식에 함께 한 참여작가들.

할 이번 전시에는 김민경(설치), 김지희(입체평면), 노은영(평면), 박지형(퍼포먼스), 박찬진(공예), 손지원(평면), 위주리(평면), 유기안(폴러주 사진), 윤상하(평면), 이찬주(설치), 이현승(평면), 임은혜(조소 공예), 정덕용(설치), 조도휘(공예), 최청조(오기) 씨 등 작가 15명이 출품한다. 이들 작가는 모두 39

## ‘...일상을 깨우는 공간’전 오늘부터 펭귄미술관 등 39세 이하 청년 작가 출품·일상 공간 전시장 활용

세 이하의 청년 작가들이며, 3명을 제외하면 대다수 광주를 연구로 활동하는 작가들로 분류된다.

이번 전시는 유류 공간과 골목길을 ‘열린 캔버스’로 삼아,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전시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특히 예술·디자인·건축의 융합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시명칭인 ‘Awakening Spaces’는 미술, 건축, 디자인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이 융합해 기존 공간의 맥락과 기능을 새롭게 재구성, 일상을 재발견하는 과정으로,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작품 활동의 기회를 열고, 광주 디자인비엔날레를 찾는 다양한 관람객과 미술 관계자에게 소개되는 자리다.

전시행사로 스탬프 투어가 진행되며, 응모 추천권을 통해 펭귄마을 공예거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아티스트 토크, 도슨트 투어, 공예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6일부터 11월 9일까지 펼쳐진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 ‘제2회 아시아서석문학상’ 작품 공모 내달 31일까지 접수...11월5일 발표

재단 아시아서석문학이 ‘제2회 아시아서석문학상’ 작품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응모 분야는 시·동시·시조·동시조 각 2편, 수필 1편으로 해당 분야 등단 작가의 신작에 한해 접수 받는다.

접수는 다음달 31일 오후 6시까지 아시아서석문학상 추진위원회 이메일(sm8816@hanmail.net)로 원고를 보내면 된다.

수상작 및 우수작 발표는 오는 11월5일 오후 6시에 발표한다. 우수작가 100명(시 80명·수필 20명)의 작품은 ‘우수문학작품집 제2호’에 수록된다.

이 중 2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 2명(종합 1명·시조 1명)과 작품상 5명을 뽑아 상금과 상패를 시상할 예정이다. 임재용 인터넷 djawody0316@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동행 지역상공인

**파인트리 요양원** ☎ 062) 236-3816

광주 동구 남계길 23(내남동)

##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 사랑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대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분
- 치매, 노인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
- 그 외 65세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하신 분

아침체조(매일)

간호사 케어

신속 고급 실내(물리치료)

- 넓고 쾌적 최신식으로 신축 고급요양원
- 축락의사(월2회), 외부강사(월18회)
- 상차림 및 행사(생신 및 어버이날, 명절 등)
- 맞춤형 전문케어(재배, 배변, 간호사 2명, 물리치료사 2명, 영양사 2명)
- 물리치료 기기 다수 다양, 편리하게 이용
- 넓은 공동공간 구성과 다양한 프로그램